



오늘이  
아름다운 목요일

# SSP 신문

Solve Social Problems



## 1·2 학년이 느끼던 불편함, 사회동아리 SSP가 해결하다!



소음이 발생했던 임시벽



소음 감소를 위해 설치한 방음재

2021년 6월 11일, 설천고등학교 사회동아리 SSP(이하 SSP)는 학교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학년과 2학년 교실 사이에 세워진 임시 벽으로 인한 소음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우선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직접 교실을 찾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어느 상황에서 소음 피해가 가장 큰지 점검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각 학년 친구들과 논의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임시 벽에 방음재를 붙여 소음을 줄이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결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SSP 부원들은 6월 18일, 교실 환경 개선을 제안하기 위한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계획안을 구성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을 초대했다. 발표 당일, 교장 선생님을 포함하여 많은 선생님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SSP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였다. 영상을 통해 1학년 교실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활동을 할 때, 큰소리가 날 때, 사물함을 여닫을 때 등 일상생활의 상황을 가정하고 2학년 교실에서 들리는 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1·2학년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였다. 다음으로, 임시 벽 위에 방음재를 붙여 소음을 줄이는 해결 방법을 소개하였다. 임시 벽을 허물고 다시 벽을 세우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 기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들과 회의를 한 후에 SSP가 제시한 방법을 방음재를 붙이는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했고 7월 말 공사가 착수되었다.

개학 후, 학생들은 달라진 교실의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사물함 여닫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줄어들면서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을 할 때도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선생님은 “전에는 들리던 옆 반의 소음이 줄어들어서 수업에 집중하는 것 같다. 왜 전에는 이런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불편함을 불평하는 대신 익숙해져 이를 바꾸는 데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나 사회적 문제는 우리의 노력 없이 개선되지 않는다.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탐구해 봐야 한다. 사회 동아리 SSP는 학생을 대표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 동아리 SSP의 한 부원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니 정말 신기했다.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니 조금은 뿌듯기도 하고 많이 긴장했는데 선생님들께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 주셔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다. 벽을 붙 때마다 너무 부끄럽다고 우리 학교를 뒤흔들기까지 하고도 대단한 경험이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사회 동아리가 한 것처럼 불편함이 생기면 그 불편함을 미루기보다 어떻게 해결할지 나서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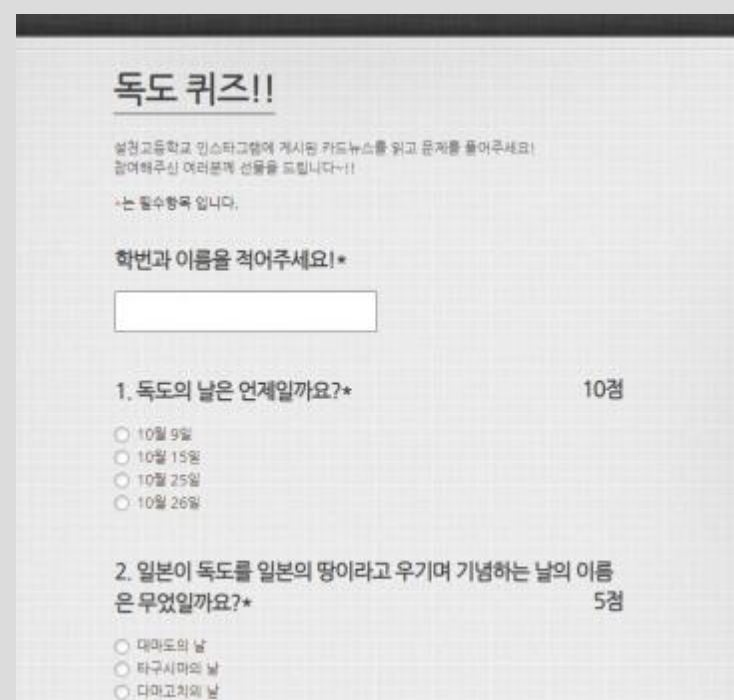
## 쉽게 지나치는 기념일, 독도의 날 캠페인



한반도의 아픔이 시작되는 독도



SNS에 게시한 독도의 날 카드뉴스



플랫폼을 활용한 독도 퀴즈

2021년 10월 21일 설천고등학교 사회 동아리 SSP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에 관심을 갖고 주변 수호의 의지를 다져보고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학교 SNS에 게시하는 등 독도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독도의 날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날이다. 사회동아리 SSP는 독도의 날을 알리며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 카드뉴스에는 우리 정부에서 독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으로 시작된다. 첫 페이지에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라고 하며 독도가 우리나라 밖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설명되어있다.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년 기념하며 독도가 일본의 땅임을 주장하고 있다. 순서대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증거, 독도를 위해 힘 쓴 인물들을 세 번째와 네 번째 페이지에 넣었는데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증거로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보여주며 설명하였고, 독도를 위해 힘 쓴 인물로는 안중환 박사의 업적을 설명하였다. 이 카드뉴스는 학교 공식 SNS에 게시되어 그저 게시판에 붙여있는 것보다 더 접근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 카드뉴스를 읽고 같이 게시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간단한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맞춘 학생들에게는 맞춤 문제의 상품품 제공하였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다. 이 캠페인에 대해 SSP 멤버들은 “독도를 많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알리니 독도가 더 애듯하고 부듯하게 느껴졌다.” 또 다른 학생은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독도에 대해 몰랐던 지식들도 알게되었고, 나와 우리 동아리원들도 모두 같이 이 세상을, 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니 힘들긴 했지만 너무 보람있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독도의 날처럼 우리가 꼭 알고 기념하고 관심을 가져야하는 날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고 놓치는 날들이 많다. 그렇지만 사회 동아리 SSP가 독도의 날을 알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고 말해주면 우리 사회는 현재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하여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날들 속 그날 누군가가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며 넘기기보다 사회 동아리 SSP가 한 것처럼 작은 기념일도 소중히 여겨주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 진짜?가짜? 이 기사는 진짜일까?

## 10대 문제, 멈춰!

가짜뉴스에 대해 아십니까? 가짜뉴스란,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논란이 뜨거우나, 정체가 모호하고, 무엇이,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사람이 적는 것이다. 실제 <버드디즈>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대선 기간에 가짜뉴스가 공유된 수는 870만 건이다. 주요 언론사 뉴스의 페이스북 공유 수인 730만 건을 앞선 수치다. 즉, 누군가는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를 보면 가짜뉴스는 진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거짓이 진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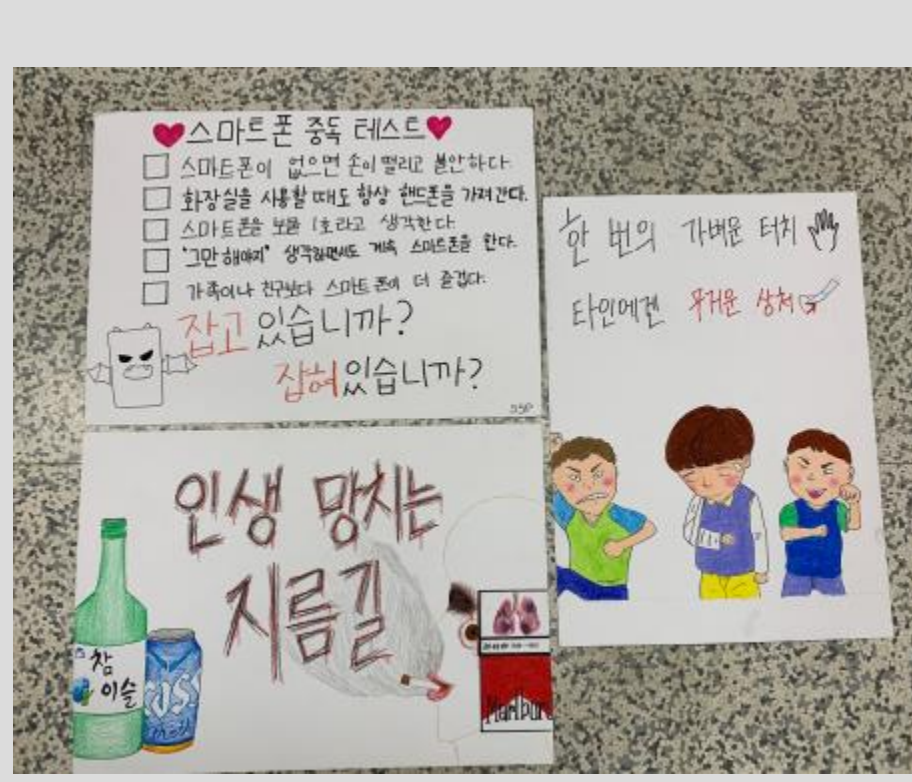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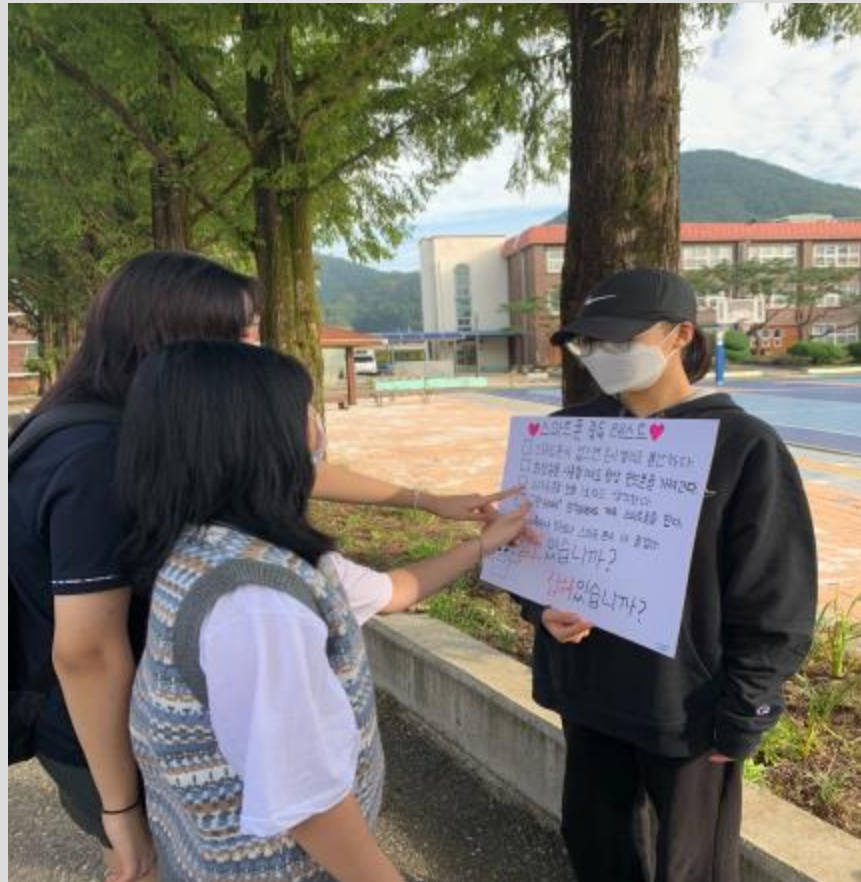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2017년, 미국 대선을 뒤흔든 가짜뉴스 사태에 대하여 아십니까? 친트럼프 성향의 악의적 가짜뉴스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베레스라는 소도지에서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작성한 것인이다. 이 학생들이 과연 트럼프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뉴스를 만든 것일까? 아니다. 트럼프에 대한 기사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MIT 미디어랩 연구팀에 따르면, SNS 이용자들이 공유한 가짜뉴스 : 진짜뉴스의 비율은 8.5 : 5로 가짜뉴스를 퍼 나른 게 훨씬 더 많았다. 2020년 대선 또한 SNS에서 가짜뉴스의 인기도가 진짜뉴스보다 6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가짜뉴스의 문제는 엄청나다.

가짜뉴스 사례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가 사회를 휩쓴 사례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근원지와 감염 경로 등에 대한 가짜뉴스가 주를 이뤘다. SNS를 중심으로 팬데믹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확진 키워드’도 빠르게 퍼져 나갔다. ‘코로나19는 생화학무기 개발 과정에서 유출됐다.’, ‘코로나19는 5G 전파를 통해 확산한다.’, ‘감염자를 처단한 보도 올린다’가 대표적이다. 의료인의 전문성을 악용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포와 혼란을 부추기는 내용이 일선 병원과 의료인 이름을 도용해 무자비적으로 유포되었다.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코로나19 환자 권고안도 SNS에 퍼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도 기승을 부렸다. 작년 3월 인터넷에는 소금물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다는 가짜 정보가 널리 퍼졌다. ‘은혜의 강’ 괴뢰에서 소금물과 입 속독을 했다가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에도 영향을 미쳤다. ‘백신 접종자에게 전자칩을 심는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바 변형된다.’ 등荒唐한 괴담이 퍼져 백신 공포를 부추겼다. 백신 접종 시작 후 한 달 동안 279명이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유포로 검거됐다. ‘코로나19예방대책위원회’라고 밝힌 백신 접종 반대자들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629건에 이른다. 정부가 발표한 사망 사례보다 많다”라고 주장했다. 질병청은 의심 신고와 사망 사례와 백신 이상 반응 사망은 별개의 수치라고 일축했다. 8월 27일 기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망 사례는 총 2건이었다.

가짜뉴스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방법 첫 번째는 기사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주로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극적이고 분별을 조장하는 기사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주로 자극적인 내용을 앞세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따라서 거짓된 뉴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장시영 학생의 사실



캠페인에 사용된 피켓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

2021년 9월 9일, 설천고등학교 동문길에는 사회동아리 SSP(Solve Social Problem)에서 10대 문제(학교폭력, 흡연 및 음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2021년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율은 88.8%(344만 명)로 2020년 대비 6.2%p(49%포인트) 증가하였고, 조사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2020년 조사 대비 0.2%p 증가하여 1.1%이다. 2021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집단 따돌림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문제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 심각한 문제이다.

흡연 및 음주 문제 또한 10대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담배 연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400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학생은 9.5%, 여학생은 3.1%로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은 세로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뇌 화학 촉진되고, 만성 폐쇄성질환(COPD)의 발병 위험성 증가 및 발생 연령의 저하, 간성독질환 발병 연령의 저하, 각종 흡연 관련 암 발생 위험 증가하고, 성인이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시킨다. 또, 청소년기의 음주는 성인기의 알코올 사용 장애 및 알코올 의존 위험을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관련 능력을 저하시킨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35.8%이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가짜북 중독군’, ‘안구 건조증’ 같은 신체적 영향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준다. 강박증과 우울증은 스마트폰 중독의 부작용으로 꾸준히 언급될 만큼 위험하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SSP에서 위 캠페인을 통하여 설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0대 문제(학교폭력, 흡연 및 음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학생들이 지나치니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도 할 수 있는 피켓을 만들었다. 캠페인을 주최한 SSP 동아리 학생들은 캠페인을 진행하여 10대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10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국가. 우리는 다양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여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는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동아리다. SSP는 설천고등학교의 사회동아리로 Solve Social Problems의 약자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SSP 동아리의 목표다. ‘작은 움직임으로 큰 효과를 만들어 내자!’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 도서추천으로 유익한 내용을 공유하고 더 탐구하자!



자신이 읽은 책을 서로 추천해주는 모습

2021년 3월 12일 사회동아리 SSP는 사회 분야 도서 추천하기 활동을 여러 활동을 중 가장 먼저 진행했다. 도서 추천은 각자 읽은 책에 대해 소개하고 책 내용과 주제에 따라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더 깊이 탐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 책을 읽어보고 우리 동아리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의 책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추천된 책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이 책의 내용은 사회의 평등을 주제로 하여 기회와 평등의 시각을 새롭게 일깨울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주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소개하고 싶은 이유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사회의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 추천된 책은 ‘포스트루스-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이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 속에서 거짓 정보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왜 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정보에 현혹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 책은 인터넷이 발달해 수없이 많은 거짓 뉴스와 근엄한 현재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천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량한 자발주의자’라는 책이다. ‘선량한 자발주의자’라는 책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자발과 혐오의 순간을 열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책은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자발적인 말이 아닌지 깨닫게 해주고 자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했다.

위 세 권은 동아리 내에서 발표를 들은 뒤 가장 읽어보고 싶은 책으로 뽑힌 책들이다. 세 권 모두 현재 사회를 살아갈 때 문제 해결성을 높여주고 현재의 이해도도 높여 줄 것이다. 현재의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책들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 설천고등학교 SSP, ‘마스크로 지키는 우리 몸’ UCC 제작



UCC 화면 갈무리

설천고등학교 사회동아리 SSP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 쓰기 장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SSP는 ‘마스크로 지키는 우리 몸’이라는 제목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제작해 출품하였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 ‘몸’과 친구들이 공중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에 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될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자는 총 354,355명(2021년 10월 26일 기준)으로 25일 기준 전일 동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비말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을 담은 UCC 제작으로 설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SSP 동아리 학생은 “코로나19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정보들도 알게 되었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였다. 우리 학교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져 아직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 뿌듯했다.”고 말했다.

## 조용한 살인마, 미세먼지

조용한 살인마,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미세먼지는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진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 중 입크기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μm 이하의 먼지다.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기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유와 검열,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서는 미세먼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안전할까?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에 큰 해를 끼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사망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천식 발작, 급성 기관지염, 부종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 미세먼지가 체내 여러 장기에서 활성산소를 공급하여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조직 손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작용은 혈류를 따라 전신에서 작용하므로 신체 다양한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덤말 마스크나 먼 마스크보다 KF 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렌즈보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 물을 수시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체내의 미세먼지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어 미세먼지의 침투를 막고 중금속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환기 후 바닥을 물걸레로 닦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환기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필요하다. 환기는 대기 이온이 활발한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환기 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충분히 가라앉으면 물걸레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철도상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각 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다은 학생의 사실

